

가르치며 배우는 시간, 생각을 바꿔준 ‘사내강사양성교육’

글 본부 인재경영팀 홍지혜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배움은 가르침 속에도 존재한다는 뜻일 것이다. 사내강사양성교육 참여는 이 말의 뜻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교육이 시작되는 5월 16일 아침, 원주 치악산 호텔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적은 나는 교육시간이 다가올수록 발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다. 교육이 시작되고, 조별로 나누어 앉아 자신에 대해 1분 스피치를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타인 앞에 서야 한다는 부담감



1분 스피치 교육생들 앞에서 본인의 이름과 소속, 현재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이번 교육을 통해 얻고 싶은 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시간이었다. 평소 1분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기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여겼으나, 막상 앞에 서보니 목소리는 떨리고 행동은 부자연스러웠다. 스피치가 끝날 때마다 조원들에게 내용 구성과 전달 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잘한 점과 개선해야 할 것들을 대화를 통해 공유하다 보니 어색했던 분위기와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1분 스피치가 끝난 후, 사내강사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강의는 ‘이해를 도와주는 자료 준비’와 ‘정확한 내용 전달’이 전부였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강의를 위해서는 분석·설계·개발·실시·평가 총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중 분석·설계·개발 3단계가 사전 준비 단계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배웠다. 교육생들은 각자 준비해온 교안을 토대로 분석·설계를 통해 학습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내가 진행할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지, 강의를 통해 학습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등 세세한 내용을 적어보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덧붙여야 하는 부분과 내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파악되기 시작했다. 열정적인 교육은 계속되었고, 배운 것을 토대로 각자 준비해 온 교안 자료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실질적 교육들



5분 스피치 번호를 뽑아 순서를 정했다. 발표자의 정면에는 발표 장면을 촬영할 핸드폰과 시간 경과를 알리는 팻말, 알람종이 준비되어 있었다. 한 명의 발표자가 앞에 나가서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강사와 타 교육생들은 발표자에 대한 평가를 피드백 시트에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피드백 시트에는 슬라이드의 가독성·연계성, 논리적 레이아웃 등 교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자세와 시선처리, 말의 속도·발음 등 강의전달 스킬에 대한 장·단점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내 차례가 시작되었다. 사람들 앞에 서니 자세가 경직되고 얼굴이 빨개짐을 느꼈다. 생각보다 5분은 금방 지나갔고, 예상보다 짧게 발표하게 되어 아쉬움이 가득했다.

첫날에는 내용의 논리적 구성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면, 둘째 날에는 발표자의 자세, 레이저포인터 활용법 등 스피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이어졌다. 수업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파워포인트를 통한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었다. 이 외에도 글자의 크기가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다가가는지 등에 대해 배우면서 교안에서 빠뜨린 점,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수정해나가기 시작했다. 손짓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43% 더 설득력이 높다는 것, 제자리에 서서 말하는 것보다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시선을 끌 수 있다는 효과들에 대해서도 배웠다. 또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팁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번 사내강사양성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10분 발표시간에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다짐하며, 첫 번째 발표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교안과 멘트를 수정해 나갔다.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



10분 스피치 마지막 발표는 5분 스피치 때와 달리 강의 내용을 교안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했다. 그러나 5분 스피치에 비해 교안과 발표 능력이 향상된 분들을 보니 자극이 되어, 나 또한 앞에 나가서 개선된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고,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놓치고 간 부분이 많아 완벽하게 끝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처음 발표 때보다 자세와 교안이 많이 보완됐다는 피드백에 연습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나타난 것 같아 이번 교육을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도 발표 수업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과목이었고, 이 교육 또한 참석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하지만 마지막 발표가 끝났을 때의 기분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었다. 사내강사양성교육은 2박 3일의 기간 동안 오로지 발표를 위한 자세를 배우고, 스스로 교안을 만들어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특별한 교육이다. 마지막 발표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무엇보다 이 교육을 듣기 전과 후의 마인드 차이가 가장 큰 교육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